"나이 60…소설에 늦바람 났지요"

첫 소설집 낸 광주일보 신춘문예 출신 정을식 씨

'붉은머리오목눈이' 비루한 삶에 대한 성찰의 기록

올해 나이 만 60세. 글을 쓰기 시작한 지 40년이 돼가지만 작가는 책 내기를 조심스러워 했다. 그것은 바쁜 일상과 일 꾸미기를 좋아하는 작가의 성격 때문이기도 하지만 무슨 일이든 에멜무지(단단하게 묶지 않은 모양)로 하기 싫은 작가의 고집이 이끈 산물이기도 하다.

지역에서 시인으로, 소설가로 활동하고 있는 정을식(정을식법무사무소·사진)씨가 예순의 나이에 그의 첫 소설집 '붉은머리오목눈이'(심미안 펴냄)를 출간했다. 1997년 이후 지금까지 세 권의 시집을 냈지만 소설집은 이번이 처음이다.

"뒤늦게 소설집을 냈습니다. 삶에 지치고 게으르다 보니 이제야 책을 내게 됐습니다."

광주시 동구 금남로의 한 식당에서 만난 정씨는 "이번 소설집은 현실과 이상의 괴리 속에서 고민하고, 나를 할퀴었던 무던한 삶의 기록들"이라고 밝힌다.

정씨의 이번 소설집에는 처음 소개하는 '난변기'(蘭辯記)와 '절벽에 서다' 등을 포함, 총 9편의 단편을 엮었다.

투박하고 어눌하지만 진솔함이 묻어나는 시를 써온 정씨는 이번 소설집에서도 평소 느끼고 경험했던 비루한 삶에 대한 감상을 진지한 성찰, 치열한 글쓰기로 풀어냈다.

특히 표제작 '붉은머리오목눈이'는 바보스럽게 뻐꾸기의 알을 품어 부화시키고 혼신의 힘을 쏟아 기른 후 이를 날려보내는 '붉은머리오목눈이' 같은 삶을 사는 젊은 엄마 최승희의 이혼 소송사건을 통해 사랑에 대한 의미를 새롭게 해석하고 있다.

이외에도 실직 후 고향을 찾은 '성태'가 첫사랑을 만나 추억 속에 헤매다가 삶의 의지를 다잡는다는 내용의 '조용한 집', 골프와 인생살이를 재미나게 풀어쓴 '黃眞伊 떠나갔어도'등 질퍽한 삶의 경험을 바탕으로 쓴듯한 다양한 이야기를 담았다.

정씨는 작가의 말을 통해 "어지럽게 돌아가는 세상, 삶이라는 하나의 운명체가 시대의 환경속에서 어떻게 변모하고, 굴절되어 가는지 느끼고자 했다"며 "작품을 통해 끝없는 시간의 윤회 속으로 가라앉는 허영과 혼돈의 탄성을 되뇌며 시린 삶을 실컷 구토하고 싶었다"고 밝히고 있다.

20여년동안 시와 난(蘭)과 공존하는 생활을 해왔다는 그는 뒤늦게 골프와 색소폰과 더불어 이제는 완연한 자유를 누리고 있다고 했다.

정씨는 "이러한 자유가 감성적 사유와의 두엄이 되어 문학의 세계에서 새 촉을 틔우고 꽃을 피울 수 있을 것"이라고 희망한다.

최근 3년 임기의 광주전남소설가협회장에서 물러난 정씨는 "이제야 비로소 한정된 시간과 공간에 대한 상실의 아픔, 인생의 맛에 대해 조금은 알 것 같다"며 "늦바람난 50대처럼 문학을 사랑하고 창작에 열을 올리겠다"고 밝혔다.

광주일보 신춘문예에 1970년 소설로, 1976년에는 시로 당선되며 등단한 정씨는 교사와 공직(광주지방법원)생활로 20여 년간 문단활동을 접었다가 지난 1997년 첫 시집 '진트재 너머'를 내며 다시 활동을 시작했다.

한국소설가협회, 국제PEN클럽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광주일보신춘문학회장, 광주전남소설가협회장을 역임했다.

한편, 정씨는 오는 22일 오후 6시 광주시 서구 치평동 상무정에서 회갑을 겸한 출판기념회를 가질 예정이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이런 사랑 이야기 어때요?

로맨틱 코미디 두 편 … 아기자기한 스토리·감칠맛 나는 대사 '재미'

'결혼 연습'

31일까지 금남공원 앞 공연 일번지

'70분간의 연애'

2월 7일까지 우체국보험 광주아트홀

사랑의 여러 모습을 보여주는 로맨틱 코미디 두편이 공연중이다. 결말이 예견된 로맨틱 코미디 특성상 조금은 뻔한 스토리지만 아기자기한 스토리와 감칠맛 나는 대사 등이 연극 보는 재미를 느끼게 해주는 작품들이다.

극단 DIC은 '라이어'의 작가 레이쿠니 작품인 '결혼연습'을 무대에 올리고 있다. 31일(목~일요일)까지 광주 금남공원 앞 공연 일번지.

마흔 세살 소심남 조지와 열아홉 철부지 소녀 루이스의 사랑을 그린 '결혼연습'은 아내와 이혼하고 정해진 틀에서만 살아가는 조지의 집에 만삭인 천방지축 루이스가 찾아오면서 이야기가 전개된다.

나이도, 사는 방식도 다른 두 사람이 마음을 열고 서로를 인정하는 과정이 유쾌하게 그려진 작품으로 윤희철·나윤정·이명덕씨가 출연한다. 전석 만원. 문의 062-514-4328.

문화공방디케이비(주)가 우체국보험 광주아트홀(광주 상무지구)에서 오는 2월 7일까지 공연하는 '70분간의 연애'는 오래된 친구이자, 연인의 사랑 이야기다.

고등학교 때부터 15년 째 친구 사이인 지수와 준식은 술에 취한 어느날 사고를 치고 만다. 단골 카페에서 만나 서로의 잘잘못을 따지기 시작하던 두 사람은 애써 태연한 척 하지만 자신과 상대방의 감정의 정체를 궁금해 하고, 끊임 없이 상대방에 대한 탐색전을 벌인다.

우정인지 사랑인지 헷갈리는 두 사람 사이의 갈등과 오해, 알듯 모를 듯한 남녀간의 관계 방정식 등은 보통의 연인들도 동감할 수 있는 부분이다

두 사람 사랑의 메신저 역할을 하는 메모지와 곰인형 등 작은 소품들이 이야기를 풍요롭게 하며 유쾌한 대사가 웃음을 머금게 한다.

서울 대학로 소극장에서 장기 공연중인 작품으로 김찬형·유지연씨가 출연한다. 티켓 가격 3만원. 문의 1544-5010.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평화연극제 광주 대표 브랜드로"

최영화 신임 광주연극협회장

"광주 연극의 르네상스를 꿈꾸며 광주 연극의 저변 확대를 위해 열심히 뛸 생각입니다."

17일 신임 광주연극협회장으로 선출된 최영화(48·송원대 엔터테인먼트학과 교수)씨는 "지난해 지역 연극계는 여느 장르보다 공연 편수도 많았고, 연극인들이 진지하게 작업을 진행하는 등 광주 연극의 부활을 알리는 징후들이 있었다"며 "임기 3년 동안 지역 연극계가 더욱 튼실해 질 수 있도록 회원들과 함께 다양한 방법들을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회장은 광주연극제, 소극장 축제, 대학연극제 등 연극협회가 꾸준히 진행해온 사업들의 내실을 기하는 한편 평화연극제를 특화시키겠다고 말했다.

"평화연극제는 광주의 정체성을 가장 잘 나타낼 수 있는 행사입니다. 평화연극상을 제정하고, 해외 극단들도 초청하는 등 해마다 업그레이드 시켜온 평화연극제를 문화수도 광주의 대표 공연 브랜드로 만들도록 규모도 키우고 내실있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최회장은 "지역 연극인들이 의기투합, 공동 작품을 제작하는 등 역량을 키울 계획"이라며 "무엇보다 회원들과 즐겁게 작업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남대 극회 출신인 최씨는 2009광주국제공연예술제 예술총감독을 역임했으며 광주비엔날레, 디자인비엔날레, 충장로 축제 등 지역 문화행사의 프로그래머로 활동했다. 전국연극제에서 '취선록'으로 대통령상과 연출상을 수상한 최씨는 극단 진달래피네의 대표도 맡고 있다.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다문화 가정에 전통 전수

설맞이 강좌 수강생 모집

북구여성인력개발센터

광주북구여성인력개발센터는 다문화 가정 설맞이 무료 강좌 수강생을 모집한다.

다문화 가정 여성들에게 한국의 전통을 알리기 위해 마련한 이번 이벤트는 삼색나물, 돼지갈비찜 등 다양한 요리 만들기에 대해 배우는 명절음식및 생활요리, 어린이 한복 만들기로 구성돼 있다.

강좌 기간은 18일부터 2월 9일까지 4주간 모두 8차례 진행되며 15명 선착순 마감이다. 문의 062-266-8500.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대한민국오페라 대상 수상자 갈라 콘서트

바리톤 조규철·소프라노 오송하씨 무대에

조규철씨

오송하씨

바리톤 조규철씨와 소프라노 오송하씨가 제2회 대한민국오페라 대상 수상자 초청 갈라 콘서트 무대에 섰다.

16일 서울 예술의 전당 콘서트홀에서 열린 이날 음악회에서 조씨는 오페라 '팔리아치' 중 '프롤로그'를, 오씨는 '람메르무어의 루치아' 중 '주위는 침묵에 잠겨'를 선보였다.

조씨 등은 2009 대한민국오페라 대상에서 소극장 부문 대상을 수상한 강숙자 오페라라인의 '초인종'에서 주역인 엔리코와 세라피나 역을 맡아 열연을 펼쳤다.

조씨는 전남대와 경희대 대학원을 거쳐 이태리 노바라 국립음악원을 졸업했으며 현재 전남대학교 겸임교수로 활동중이다. '돈 죠반니', '황진이' 등에서 주역을 맡았으며 베르첼리 국제 콩쿠르에서 특별상을 수상했다.

오씨는 전남대 출신으로 독일 드렌스덴 국립음대 마이스터 최고연주자 과정을 졸업했으며 지금까지 7차례의 독창회를 연 바 있다.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대동문화' 1·2월호 출간

대동문화재단(대표 조상열)에서 발행하는 격월간 문화예술 잡지 '대동문화' 2010년 1·2월호(통권 56호)가 출간됐다.

신년을 맞은 이번 호 기획 특집은 '화려한 꽃을 피워낸 남도공연문화의 맥(脈)을 찾아서'이다.

예향으로서 남도의 공연 예술의 화려한 예맥을 이어온 판소리와 창극, 근대극, 뮤지컬까지 공연문화사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했다. 아트라이프에는 최근 보성 우종미술관에서 초대전을 개최한 황영성 화백을 초대했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